해남군 "화원단지, J프로젝트 포함을"

'사업 중복' 민자유치 어려움… 통합 움직임 확산

관광공사 적극 추진, 전남도 "투자 있다면 환영"

한국관광공사가 J 프로젝트에 해남 화원관광단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도 양 사업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3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해남화원관광단지는 현재 6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나 인접 지역인 산이면과 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J 프로젝트와 사업분야가 중복돼 민자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J 프로젝트에 화원관광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해남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해남 현지에서 양 사업을 통합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화원관광단지와 불과 10㎞떨어져 있는 인근 지역에 J 프로젝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J 프로젝트는 법인세가 최대 100%까지 감면되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민간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J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3천만평 규모의 거대 관광단지가 개발될 경우 150만평에 불과한 화원관광단지의 기능 및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화원관광단지에 들어설 골프장이나 마리나, 위락단지 등 대부분 시설이 J 프로젝트와 중복돼 최악의 경우 사업실패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J프로젝트·화원관광단지 위치도

그러나 해남군과 관광공사가 최근 양 사업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남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합 공론화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J 프로젝트 개발부지가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이 되나 투자자만 확보될 경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용태 기업도시기획단장은 "J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면 화원관광단지 개발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광공사=J 프로젝트와 화원관광단지 통합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미 문광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비공식적인 건의를 한 바 있다. 화원관광사업이 J 프로젝트에 통합되더라도 개발 사업 주체는 현재처럼 관광공사가 맡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남군=화원관광단지와 기업도시를 통합시켜 추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이덕 해남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은 "화원관광단지의 독자 추진이 당장 세수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업도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분 해남군의회 의원도 "화원면 주민들도 J 프로젝트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섬진강 기차마을 마당극 '심청이야기'

심청의 고장인 곡성군이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12시와 오후 3시에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마당극 '곡성에서 만나는 심청이야기'를 공연한다.〈사진〉

마당극 심청이야기는 지역주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상설공연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매주 일요일 2차례 공연 주차·입장료 무료 개방

'곡성에서 만나는 심청이야기"는 각설이 부녀 왕초와 눈보가 심청이 살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모험담 속에서 효녀심청과 심봉사의 애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쳐간다.

마당극 공연은 (사)다움문화기획연구회와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놀이패 신명이 이끌어 갈 계획이다. 주차료와 입장료 무료.

곡성군 관계자는 "누구나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과 섬진강 기차마을이 갖는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지역 단신/

영광소방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소방서는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에 119수난구조대가 개장과 동시에 상주근무를 하고 있으며,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등 3개소는 순찰근무를 실시하는 등 해수욕장 폐장일인 31일까지 구급차 배치, 인명구조, 하계안전교실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영광소방서가 안전사고를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에 발생한 안전사고 중 연간 발생건수(292건)의 62%가 여름 휴가철인 6~8월 사이에 발생(182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제4회 진도 해변축제 성료

제 4회 진도해변축제가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진도 관광1번지 고군면 가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7월! 바다의 향연'이란 주제로 열렸다.〈사진〉

진도군(군수 박연수)이 주최하고 (사)한국연예협회 진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해변 축제는 피서철을 맞아 가계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및 주민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29일에는 군립예술단의 민속공연, 초대가수 라이브공연, 힙합댄스 등이 선보였으며 둘째 날은 초대가수 공연과 해변가요제가 펼쳐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해양경찰본부, 지방경찰청 격상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가 목포지방해양경찰청으로 격상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방본부 4곳(인천, 목포, 부산, 동해)중 목포와 부산, 동해 등 3곳을 지방청으로 격상키로 행정자치부와 최종협의를 마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편성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무관 직급의 지방해양경찰청장직이 신설되며 지방해양경찰청장 아래 총경급 과장, 경정·경감급 계장 체제로 지휘라인을 구성하고 실무인력 60~80명을 추가 보강하는 한편 산하 해양경찰서(목포, 제주, 여수, 완도 해양경찰서)에 대한 인사, 예산, 감사 권한도 부여된다.

목포해양경찰본부는 9월 중 자체 조직 개편을 통해 늦어도 10월 중에는 목포지방해양경찰청을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목포지방해양경찰청 독립 청사 건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가을 보리 보급종 신청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소장 민주석)는 올 가을 파종할 보리 보급종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급종을 받을 희망 농가는 오는 8월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나 농업인 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판매가격은 쌀보리의 경우 20Kg당 1포에 2만5천460원이다. 문의 (☎061-323-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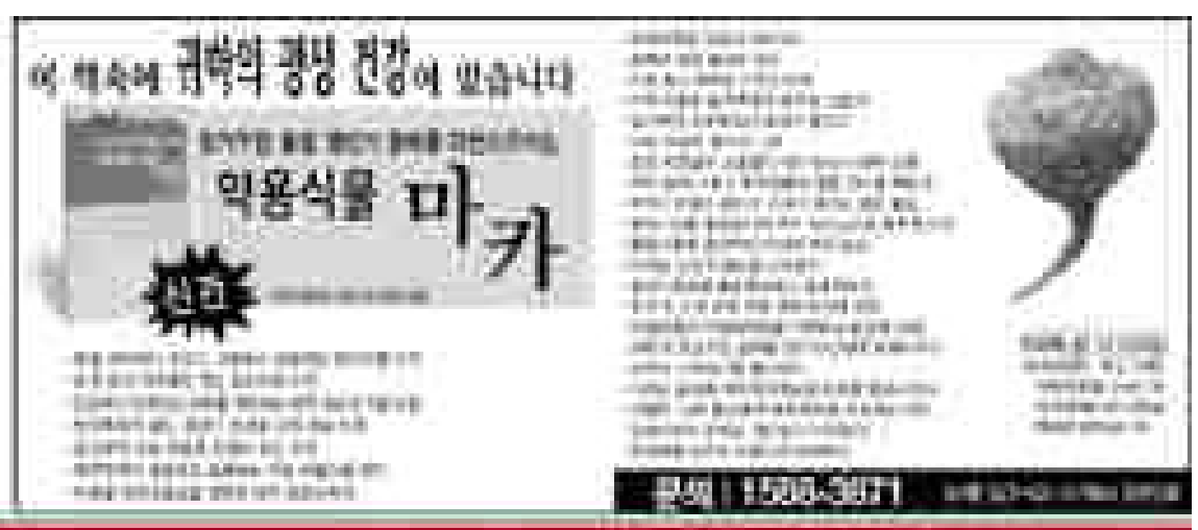
/송기동기자 song@

목포 버스터미널 23년만에 새단장

목포의 관문인 종합버스터미널이 개장 2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됐다.〈사진〉

금호고속은 "35억 원을 들여 착공 5개월여 만인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시설, 분위기, 서비스 등에서 한 단계 수준을 높인 버스 터미널로 꾸몄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측은 최고급 자재로 바닥부터 지붕까지 밝고 세련된 분위기의 최신식 시설로 교체하고 대합실의 천정을 개방해 자연 채광에 의한 조명의 밝기를 높였으며 고객 대기실도 별도로 마련해 냉난방 시설을 보완했다.

특히 대합실 지하에 식당가를, 2층에 병원, 커피숍 등을 유치,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했으며 우천시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착 홈에서 택시 승차장까지의 이동 통로에 지붕을 설치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